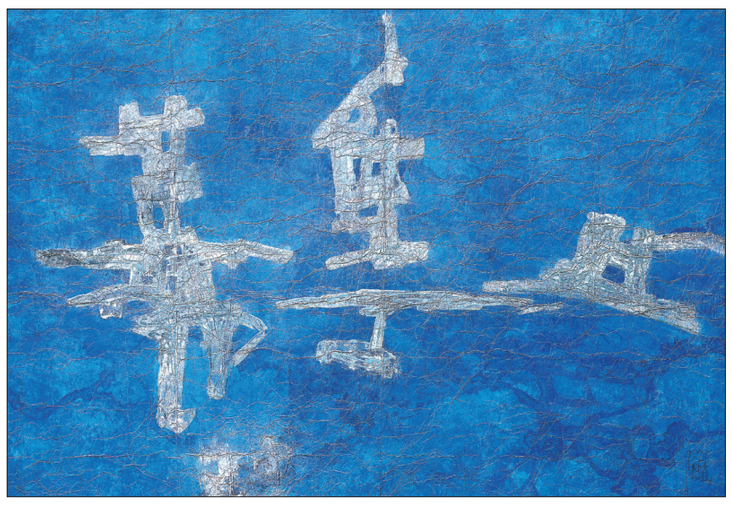
수해 딛고 단단해진 원로 화가의 작품세계

월하미술, 한국화가 임효 개인전
종로 전북도립미술관 서울분관서
2022년 수해 後 3년간 창작 몰두
한층 깊어진 독자적 조형언어 눈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임효 작가의 작품 '층위인연(133x192cm, 한지, 옻칠, 주석분, 2025)'.

2022년 여름밤에 내린 큰 비는 원로 한국화가의 작업실을 물바다로 만들었다. 손쓸 틈도 없이 들이 닥친 탁류는 오랜 세월 작가가 그려온 그림들을 그대로 수장(水葬)시켰다. 자식 같은 작품들을 잃어버린 작가를 다시 일으킨 것은 '비움'이었다. 두려움에 다시 붓을 들기도, 한 획을 긋기도 어려울 때 "수해는 파괴였으나 동시에 비움"이었다는 깨달음이 들었고 그 공(空)적인 시공간에서 작가는 그림을 그려나갔다. 이 순간에 대해 작가는 이 같이 회고 했다.

"모든 것은 사라지며 다시 생성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空)은 아무것도 없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재해 이후 나는 내 의지를 앞세우기보다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맞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시간은 의지를 꺾는 시간이 아니라 의지를 내려놓는 시간이었고 그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조형의 세계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생성(生成)의 시간'입니다."

한국화가 임효(70)가 수해로 인한 절망적 시간을 이겨내고 3년여 만에 한층 단단해진 자신의 작품세계를 대중들에게 선보인다.

전북도립미술관이 주관하고 갤러리 월하미술(대표 신영채)이 주최하는 임효 작가의 개인전이 1월 8일부터 2월 1일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전북도립미술관 서울 분관에서 개최된다. '연시(連時)~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통 재료를 기반으로 현대적 조형 언어를 구축해 온 임 작가의 최근 신작들이 대거 소개되는 자리로 작가는 자신의 예술의 핵심 개념인 '생성(生成)의 회화'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작가는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2022년 여름 수해로 작업실과 다수의 작품이 침수된 이후 약 3년에 걸친 '복구와 재생의 시간'을 견디며 다듬은 신작들로 다수 출품한다. 물은 사라졌지만 그 흔적은 '기억의 변형'으로 화폭에 남아, 새로운 시간의 지층을 형성한다. 이밖에 지난 2년간 신규 제작한 최근 작품들을 대형 신작들과 함께 선보인다.

한마음선원을 창건한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천수경〉 영문판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의 삽화를 맡았던 임 작가에게 작품은 곧 수행이다. 그는 "이제 나의 그림은 미리 정해 놓고 가는 길이 아니다. 예측하지 않고 부딪치며 보이지 않음 속에서 자신을 확인해 가는 수행"이라며 "형을 만들고 다시 지우며 형 이전의 자리를 더듬어 가는 일"이라고 밝혔다.

추운 겨울, 템플스테이로 특별한 시간을 보내세요

한문 강의, 썰매 타기 등 프로그램 '다채'

묵은 해를 보내고 신년을 맞이하는 연말연시는, 새로운 계획을 설계하고 다짐하는 시기다. 연말연시와 겨울 방학을 맞아 전국 52곳 사찰에서는 이색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이 2월까지 다양하게 진행된다.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템플스테이로는 전북 부안 내소사의 '놀면서 배우는 한문학당'이 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문 강의와 체험학습, 자연 탐방을 결합한 구성이다. 충북 보은 법주사는 어린이 선명상과 보물찾기, 썰매 타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겨울방학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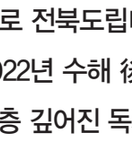
성인과 대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경기 고양 흥국사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명상에 집중하는 '겨울방학 도파민 디톡스' 템플스테이가 있다. 경기 양주 육지장사의 '단.단.단: 단식은 단순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템플스테이는 호흡과 명상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체험이 가능하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일화 스님은 "겨울 특별 템플스테이는 어린이와 가족, 성인까지 각자의 삶의 속도에 맞춰 사찰에서 쉼과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다잡고 병오년 새해를 평안하게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참가 신청 및 사찰별 상세 일정과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www.templest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겨울 템플스테이 주요 일정

사찰명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간략 소개	진행 기간
관문사	'소원을 빌어 봐' 송구영신 템플스테이	타종, 소원지쓰기, 우면산소망탑산책	25.12.31~26.2.28
국제선센터	설날맞이: 내마음에선함	사찰전통새해인사'통알', 초공양, 성불도놀이	26.2.16~2.18
	내마음에선함: 겨울의고요	자개전통미니찻상만들기, 아크릴무드등DIY	26.1.30~2.1
범어사	청춘 템플스테이	숲길포행, 사물관람, 성보박물관 관람	25.12.24~26.2.28
선암사	고요에 머무는 이틀_수험생을 위한 특별 휴식 템플스테이	예불, 108배, 꿈단주만들기, 명상	26.1.15~16/ 26.2.19~20
도림사	대학생과 수능생을 위한 특별 방학템플스테이	예불, 108배, 염주 만들기, 포행	25.12.17~26.1.31
무각사	절친 청소년 템플스쿨	염주만들기, 명상, 와플만들기, 다도체험	26.1.17~18
묘적사	냥이와 함께하는 대학생, 수능생 대상 새해맞이 특별템플스테이	단주만들기, 소원지 작성, 계곡명상, 스님과의 차담	26.1.20~21
용주사	작은 쉼표 템플스테이	차담, 사찰소개, 범종체험, 예불	25.12.2~26.2.27
육지장사	단.단.단: 단식은 단순하게, 마음은 단단하게	온구체험, 선차공양, 108배, 산소호흡명상	26.1.2~2.28
화운사	사찰에서 명상하고, 에버랜드에서 신나게~	명상, 단주만들기	26.1.7~2.4
흥국사	겨울방학 도파민 디톡스	셀프 디톡스, 마음필사, 숲명상	26.1.7~2.28
용연사	겨울, 산사에서 마음을 그리다	별바라보기, 단청&불교캐릭터키링만들기	25.12.17~26.3.15
구인사	나를 만나는 여행, 겨울 구인사 템플스테이	염주 만들기, 묵언 사찰 투어, 예불	26.1.1~31
반야사	"겨울방학 선물" 템플스테이	합장주, 연꽃만들기, 호흡명상, 부처님채색명상	25.12.18~26.2.27
법주사	겨울방학 가족과 함께하는 어린이 선명상 템플스테이	어린이 선명상, 보물 찾기, 썰매 타기	26.1.23~25
	[설맞이] 특별템플스테이	은행윷 만들기, 수정봉 트래킹 및 해맞이, 통알	26.2.16~18
수덕사	어린이 겨울방학 템플스테이	다도체험, 연꽃등명상, 싱잉볼명상	26.1.22~24
	청소년 겨울방학 템플스테이	전문가와문화유산이야기, 택견, 문화유산투어	26.1.11~13
내소사	겨울방학 놀면서 배우는 한문학당	한문강의, 체험학습(직소폭포탐방등), 수료식	2차 26.1.21~24/ 3차 26.2.4~7
선운사	펜 내려놓고 천마봉 정상으로!	선명상, 염주만들기, 천마봉트레킹, 국선도, 불멍	1차 26.1.16.~18/ 2차 26.1.23~25
송광사	잠시, 나에게 따뜻한 선물을 '템플스테이'	108배, 스님과의 차담, 새벽예불, 소원지 작성	26.1.1 ~2.28
대흥사	겨울잠든 나를 깨우는 요가 명상 템플스테이	요가, 108배 염주 만들기, 스님과 차담	26.1.10~3.1
도갑사	명상 리트릿(싱잉볼 · 茶 · 香 · 詩 · 명상)	에니어그램, 싱잉볼명상, 차명상, 향기명상, 시시한쉼	26.1.1~2.28
무위사	겨울방학, 월출산 보름달 템플스테이	달맞이월출산녹차밭야행, 벽화퍼즐, 차담, 명상	1차 26.1.3~4/2차 26.1.31~2.1
미황사	겨울 산사에 머무는 하얀 숨!	겨울 숲길 걷기, 온기차담	26.1.6~2.28
백양사	백양아이 겨울 명상캠프	명상, 불멍, 레크레이션, 수계식	26.1.3~4
용흥사	'너나들이' 겨울방학 특별템플스테이	담양 문화 체험,소원등 만들기, 108배, 저수지포행	26.1.22~24
향일암	향일암 병오년 신년 '나만의 DIY'	예불, 별보기, 명승지 물멍&해멍, 단청체험	26.1.9~11/1.16~18
대승사	사불암에서 바라보는 나~	단청 색입히기, 108배, 암자순례	26.1.7~25
대원사	둘이서, 셋이서, 넷이서~	108배, 염주만들기, 좌선대명상, 스님과의차담	25.12.15~26.2.28
	"수고많았습니다~"	108배, 염주만들기, 좌선대명상, 스님과의차담	25.11.11~26.1.30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부르지 않아도 다가서는 사랑

㉕ 불청우(不請友)

친하게 지내는 도반 스님 두 분의 수행 신조를 나는 따르고 있다. 한 분은 번역과 강의를 병행하며 전국을 다니는 스님이다. 이 스님은 승용차 없이 대중교통을 서너 번씩 갈아타며 먼 곳까지 법문과 강의를 마다하지 않는다. 자가용 없이 그리 다니면 피곤하고 불편하지 않느냐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

"대중이 청하지 않아도 가서 부처님 법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뭐라고 부르는 곳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이후로 나 또한 법을 청하는 곳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꺼이 간다.

또 다른 도반 스님은 주변에서 건강을 염려할 만큼 지인들의 애경사를 세심히 챙기고, 의미 있는 집회에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분이다. 이 스님은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들려주었다.

"수행자가 경사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지인들이 크게 서운해하지는 않더라. 하지만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찾아가지 않으면 서운함이 오래 남더라."



그래서 이 스님은 불러주지 않아도 상가를 찾아 염불과 기도를 올리고, 병문안 또한 거르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이 말에 깊이 공감했고, 나도 그 뜻을 따르려 노력하고 있다.

청하지 않았는데도 기꺼이 찾아가는 벗을 경전에서는 '불청우(不請友)'라 한다. 나와 너를 가르지 않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이웃의 아픔이 그대로 내 가슴의 통증으로 전해지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부르지 않아도 먼저 다가가 위로하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게 된다. 〈화엄경〉 〈유마경〉 〈법화경〉 〈대집경〉 등 대승경전 곳곳에는 "중생이 아프면 보살도 아프다"는 불청우의 보살 수행이 거듭 설해진다.

백제인의 후손으로 전해지는 일본의 나라 시대 행기 스님(668~749)은 이러한 불청우 수행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그는 양로원과 고아원을 세웠고, 당시 정부의 허락이 없었음에도 제방 15곳, 항구 2곳, 다리 6곳, 빈곤자를 위한 숙박시설 9곳을 건립했다. 보살은 요청을 기다리지 않는다. 연민과 지혜의 눈으로 중생의 소리 없는 신음을 먼저 듣기 때문이다.

불청우 수행의 근원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부처님은 6년의 수행 끝에 정각을 이루신 뒤, 보드가야에서 사르나트까지 약 250킬로미터의 먼 길을 걸어 다섯 수행자에게 법을 전하셨다. 처음 그들은 부처님을 경계했지만, 부처님은 지극한 정성으로 가르침을 베풀어 마침내 그들의 눈을 열어 주셨다. 또 〈증일아함〉에는 병들어 아무도 돌보지 않아 오물 속에 방치된 비구 제자를 부처님께서 조용하 찾아가 몸을 씻기고 손수 간호하신 이야기가 전해진다. 누구의 요청도 없었지만, 부처님은 먼저 움직이셨다.

오늘날에는 각계각층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시민 보살들이 이 불청우 정신을 살아내고 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아픈 소리에 귀 기울이며 먼저 손을 내미는 천수천안(千手千眼)의 관세음보살, 그 이름이 바로 불청우 보살이다. 〈화순 불암사 주지〉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 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